

아름다운 테러리스트

김성태 (2011년 제7회 5·18문학상 수상작)

나는 킬러다
하얀 구두를 신은 푸른 수염의 고독한 사냥꾼이다
그리운 敵이 없다
늪름한 敵이 없다
결단하듯 넥타이를 맨 패배뿐이다

이십 오년 전 밤 그때도 검은 눈이 내렸단다 태양의 중심부를 향해 새들이 부리를 박았지만 빛은
쏟아지지 않았단다

지하로 흐르는 물길을 부정하자고 별들과 합의했지만

차가운 발등 위로 내장처럼 먼지가 쌓였고 그때 나는 경찰과 학교와 부모의 그림자를 피해가지 못했단다

주저앉는다
마치 제 스스로 제 뿔을 꺾은 짐승처럼
극장으로 향하는 네거리의 사람들
일렬로 앉아 액션 멜로 판타지로 감금된 사이

총성이 울리고
발을 내밀자 보폭만큼 비가 쌓인다
아니다 각오를 품고
과녁을 노리고 싶은 날들이 있다

나는 킬러이기에
우상을 거부하며
총을 쏜 자보다 총을 쏜 자의 배후를 의심한다
촛불의 원리로
혁명이라는 한 점을 향하여 한 점을 저장한다

교묘하게 흘러가는 잿빛 구름들
번개를 의심하라 구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림자 위로 내리쬐히는 햇빛
침묵을 깬 통증이 빛난다
희다

그림자 위로 내리는 눈

김성태 (2011년 제7회 5·18문학상 수상작)

검은 눈

눈이 내리자 종교가 퍼진다
순결 사탕을 나눠주는 목사
수녀가 국가를 부르듯 캐럴을 찬양한다
구세군이 목적 없이 종을 친다
교회의 십자가가 점점 희미해진다
겨울은 가난한 골목으로만 전도되고 있다

진찰

눈발이 아스피린 가루처럼 흩날린다
24일은 피의 요일
시위하던 승려가 미라로 변해가고 있다
나는 나로부터 포로가 되었고
성탄전야 집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닮아간다
우리에게 굴러갈 내일이 없다
세상이 하얗게 중독되고 있다

거룩한 밤

폭풍 전야 눈보라가 몰아친다
풍향계가 방향 잃고 뱅뱅 돈다
단군동상 앞 실직자 김 씨가 도끼 들고 서있다
차가운 체온을 높이려는 종소리는 얼어붙었다
바람 부는 날의 성탄절
촛불이 백야성을 만든다
눈을 생포해 시집 안에 가둔다

로드맵

김성태 (2011년 제7회 5·18문학상 수상작)

*

교차로

도심 도로 어디든 비보호 구역이다
의경들의 방패가 박쥐 날개 같다
곧게 뻗은 십 미터 가량의 경찰차
풍경을 체포하고 떠난다
살아있는 시인들은 자꾸만 눈을 감고
이상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공항

여권을 만지작거리는 꼬마
이국땅으로 가는 얼굴이 하얗다
이국의 언어를 처음 배우는 것처럼 안녕
노란 우산 아래 조랑조랑 매달린 물방울
쨍, 하고 깨질 것 같다

저지대

모텔에 가려진 북쪽 방 귀퉁이
곰팡이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
맞은편 기도원은
병원으로 이송 될 환자로 분주하다
아랫집 기와 조각이 김부각처럼 부서진다
창밖으로 일본
손바닥을 뻗어 눈을 올려놓는다
자본주의적으로 차갑게 식는 눈

백색병동

정적이 무성한
병동과 병동 사이
깊은 골을 채우는 정오의 햇빛
서사도 없이 시계는 돌아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미안한 것이 생긴다
모르핀을 맞지 않아도
관자놀이에 도는 유압
두개골을 질끈 봉대로 묶는다

명상록

김성태 (2011년 제7회 5·18문학상 수상작)

달이 어두한 골목을 집어먹었을 때였다
그때 신은 부유한 육식동물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다
가난한 곳에만 차가운 바람이 젖는다고 생각했다
빈 호주머니가 무거웠다
손목의 줄기가 불거졌다
칼이 아니라 눈으로 부부를 기절시켰다
피가 피를 밀어내는 찰나에 살은 찢어졌다
가방에 뜨거운 입김을 쏘어 담았다
저녁을 향해, 별은 죽었어, 소리치며 달렸다
바람은 나를 밧줄처럼 휘어 감았다
손금이 죄처럼 형클어져있었다
손바닥은 알리바이를 뿜어냈다
경찰은 땅속에서 죽은 부부를 건져 올렸다
화려한 오후 갈증이 밀려와
시원한 콜라를 사 먹었다
그때 카메라가 죄어들었다
숨죽이고 있던 입들이 흘러나왔다
열 밤이면 아홉 밤 담장을 기웃거린 죄
뒷골목엔 신사가 없다며 해골의 웃음을 흘린 죄
꿈속에서 칼을 쥔 그림자가 나를 추적한다
12월 달력이 파랗게 넘어 가고 바람이 분다
오늘 나는 맑아서 시린 아침에게 미안하다

못

김성태 (2011년 제7회 5·18문학상 수상작)

그는 사육신이다
공중에서 좌선하고 있다
묵언하고 있다
시계를 머리에 이고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이 있다
벽에 몸을 부딪치고도
침묵하는 천성이 있다
억울한 백성이 복을 치듯
내가 폭풍처럼 그를 때려도
주저앉지 않고 당당한
직선의 뼈를 타고난
그는 수행자다
활처럼 호리호리한 몸으로
거대한 풍경을 들어올리고
제 몸에 거울을 걸어
세상을 조용히 비추는
그는 단단한 힘을 가졌다
호랑이 가죽이 덮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으며
척추를 곧추세우고
촛불의 원리로 초점을 모으며
과녁을 노리는 사수처럼
한 점을 향하여

한 점에 집중하는
그는 구도자다
벽 너머에 다른 문이 있다는 듯
검은 동굴을 파고 들어가
고집 있게 끝까지 걸어 들어가
곰처럼 무념무상 생을 버티는
황황 소리치는 벼락에도
꿈쩍 않고 면벽하는
느리고 무겁게
느리고 비통하게 두드릴수록 깊어지는
그는 못이다
못 된 시인이다

붉은 잉크

김성태 (2011년 제7회 5·18문학상 수상작)

근육질의 달 당겨져 팽팽한 밤
힘의 근원으로 새들이 솟구친다
돼지 한 마리 무게의 잎사귀를 발라낸
은행나무 빈 가지 아래 서서
붉게 익어가는 정육점 여자 뒤로
못에 박힌 십자가 못에 박힌 예수
갈고리에 걸린 사지를 보았다

고깃덩어리보다 가벼운 사람들아
검은 봉지에 죽음 한 덩이 넣고 지나가느냐
몸에 뜨거움도 없는 고양이 같은 사람들아
혀의 면적만큼만 유리창을 훑다가
잇닿은 지붕 위로 사라지느냐
피도 없는 시의 냄새
날아가지 않는 서술의 날들이었다

아니다 나는 식욕보다 진한 사유를 팔 것이다
목장갑에 육즙보다 진한 피를 묻히고
도살장의 앞치마를 두르고
힘줄을 짹 당기고 펜을 들을 들 것이다
상처가 무늬 이룬 나무도마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시를 쓸 것이다
어떤가, 투명한 페이지에 맺히는 핏방울 보이는가

판화처럼

김성태 (2011년 제7회 5·18문학상 수상작)

시계가 돌아가는 각만큼 나이테가 돌는다

평균수명으로 원뿔이 멈춰버린 토마토나무
벌레 먹힌 구멍으로 아침이 통과한다
화분에 분무하는 정각 일곱 시
조용한 예의의 시간
곰팡이 핀 벽지에서 강물 냄새가 난다

처방전만한 반 지하 창밖으로

무릎 잘린 다리들이 지나간다
거미가 공중에 발을 디디며 그물코를 수선한다
햇볕에 데워져 탄력 받은 거미줄
요요처럼 자꾸만 튕겨나가고 싶은데
낙엽색 작업복 입고 공장가는 길
손금이 족보처럼 헝클어져있다

슬픔으로 머리칼이 돌아나는 삼일

밀려오는 휴대폰 진동소리
넥타이를 목에 걸며 생각한다
비명처럼 튀어나온 광대뼈
이제와 나는 검은 테두리 속 아버지 젖줄
뼈 없는 허공을 올려다보며 반가사유
심해와 옥상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거울 속의 나는 불편하게 서있다

입체로 물결을 만드는 비

폴벌레의 무릎도 시리겠구나
물병 닮은 목젓이 가늘게 떨린다
곰팡이가 넘쳐흘러 이 방이 높이 되면 어찌나
「노르웨이의 숲」을 읽는 낮
햇빛이 낮설어 적색 커튼으로 시간을 가린다
팔이 꺾이지 않아 나는 내 등을 안을 수 없다

아름다움을 흠치고 싶은 밤마다 나는

잠수부가 되어 밤바다처럼 숨을 쉰다
프라모델 잠수함이 완성되기 직전이다
내일이면 깎아놓은 계단이 해일처럼 습격할텐데
괜찮다, 괜찮다며
등근 눈을 눈물로 말장게 씻는다
이제 막 잠잠한 일주일이 벗겨졌다 또 생겼다
양파 까는 것처럼

하얀 정원

김성태 (2011년 제7회 5·18문학상 수상작)

1. 중

지금 간신히 흔들리는 내 목젓이 맥놀이로 퍼지고

2. 푸른 사과가 있는 무덤

세계문학전집처럼 꽂혀있는
마흔여덟 화투 패처럼 깔려있는
비석 아래
백골들이 중대횡대로 계급 없이 쓰러져있다

3. 부적절한 방문

햄릿이여, 나와 노을 피는 저녁에 공동묘지로 가자
아홉 구씩 무덤 묶은 붉은 길을 따라 산정으로 가자
양 주머니에 소주 두 병씩 끼고
산발한 걸인되어 조롱받는 시인되어 시체들의 창고로 가자
성스러운 그것은 창녀촌이 아니라 적막도 숨죽이는 무덤에서
나체로 바람 타며
안개를 스치는 것이라 말해주고 싶구나

썩어가며 짙어가는 시체여
소유권을 주장 않는 뼈들이여
굶주린 산자가 죽은 자의 혈통을 수혈하듯
무덤을 열고 나온 양귀비
시체의 배꼽에 탕줄 박은 마리화나
응고된 피가 밀어올린 붉은 마약 껍어 물고
하시시 하시시 귀두에 먹물을 묻혀 습필(濕筆)인양 절절히 말하자

소년원의 낮과 밤을 고아원의 허공과 바닥을
교황청의 천사와 악마를 검찰청의 백지와 먹지를
공장의 진실과 거짓을 실험실의 암컷과 수컷을
단칸방의 소음과 침묵을 밀항선의 차안과 피안을

물것을 놓쳐 우는 까마귀
 우르르 통째로 떨어지는 밤
 먹구름 삼킨 음성으로 쏟아질듯
 재앙스런 사랑노래 부르자
 온 몸의 구멍이 열리고 세포 마다 열꽃 피면
 무덤과 무덤 사이
 젖 골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숨을 힘껏 빨아보자

4. 헛소리

햄릿이여, 한해 전 나는 벚나무 동산 아래
 친구의 시신을 묻으며 눈동자 뒤로 빙화(氷花)를 흘려보냈다
 먼 시계탑에서 출렁출렁 건너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무덤이 거대한 숲이 될 때까지 근처를 돌고 돌며
 돌며 나는 늙은 성벽이 되었다
 비석에는 품계(品階)가 없더라
 바람으로 빗어진 새 한 마리 앉았다 갈 뿐이더라
 악착같이 먹을 수 있는 잎사귀
 봉분의 크기만큼 정해져 있는데!
 햄릿이여, 쫓기듯, 오늘도 나는 금빛 낙엽을 쓸어모았다

불화를 그리던 화가야
 말 눈에 납을 붓던 수도승아
 달처럼 구멍이 뜨겁게 슬펐던 게이야
 차갑게 눈동자가 식어버린 도살자야
 고결하게 수녀의 음문을 넘나들던 사제야
 군화에 의족을 넣으며 퇴역하던 이등병아
 소녀의 체내에 한쪽 귀를 놓고 온 태아야
 스트리퍼야 심령술사야 복화술사야
 알을 품은 꿈추들 끝내

알을 깨지 못한 열외인종들아
 모두 굴러 굴러 계단식 광장에 모였구나
 나는 꽤찮은 척 웃어야 하는 거라
 광대처럼 연산군처럼 웃은 척 해야 하는 거라

흙더미에 갇힌 머리들이여
 본능이 제거된 해골들이여
 한 송이 국화를 피워냈느냐 곰팡이를 피워냈느냐
 점자의 형상으로 붙어 있는 저 무덤
 무덤의 버튼을 꼭 누르면 비루한 세계는 리셋되는가

5. 비망록

나에게 죽음이 있다면 관을 씌우지 마라 저승 가는데 여비를 내고 싶지 않구나 봉황에 덮여 환생하고 싶지 않구나 머리 카락을 발목에 묶어 몸을 둥글게 말아 화장하라 성가를 부르지 마라 암송하지 마라 《나는 최초의 알이자 최후의 알로 돌아왔다》 새의 득음에 가깝게 비망록을 창(唱)하라 산정에 골을 파서 뺏가루를 쏟고 그 위에 소나무 씨 한 톨 묻어라 대검을 꽂지 마라 토닥토닥 빗물로 두들겨라 천년 후 그 뿌리가 거대해져 외롭게 굳은 지하의 화석까지 닿으리라 화석의 뼈 깨우리라 불사조처럼 타오르리라

6. 미완결

햄릿이여, 나와 노을 피는 저녁에 공동묘지로 가자
유령들이 나타나면 그들과 넋을 출렁이고
파계한 승녀처럼 살풀이춤을 추고
서쪽에서 해가 불어올 때지 깊은 밤 안개 속
공동묘지에서 스스로 절벽이 되자

딱 하루만 미친 듯 망자의 비석을 훑아보자
얼음 도마처럼 차갑다
물고기 비늘처럼 비리다
쪼개진 레몬처럼 시리다
햄릿이여, 예감으로 비석의 맛을 말하지 말고
입천장에 박힌 목은 빨을 쑥 꺼내
공포를 물어뜯는 개처럼
혈떡이며 팔떡이며 흐려진 묘비명을 닦아보자
주석만 남은 돌기둥, 헛바닥으로 쓸어내리며
물이끼 핀 문자를 해독하자
하늘이시여, 쓰레기를 치우라고 무덤을 만들었는가
폐를 짓누르는 피여, 시간이여, 오라
늪은 풀을 일으켜 세우려 번개가 친다

영구차들 푹말 따라 오는 새벽